이개호 현역 첫 단수후보 확정…전략공천 '찻잔 속 태풍'

민주 광주·전남 총선 경선 대진표 속속 확정

분구 가능성 순천 제외…3개 지역구 21일 최종 결정

여성 단수공천 반발 움직임…서구갑 추가공모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지역구 18곳 가운데 13곳에 대해 경선 및 단수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나머지 5곳의 경선 실시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현재 광주에서는 서구갑과 서구을이, 전남에서는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21일 공관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개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수 후보 신청 지역인 서구갑과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분구 가능성이 있는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구의 경선 여부는 오는 21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갑의 경우, 추가 후보 공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주에나 경선 및 단수 후보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순천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빨라야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나 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을과 여수갑,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 대해 일부 공관위원들이 여성 단수공천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시스템 공천과 경선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 을의 양향자 예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단수공천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수 갑과 광양·곡성·구례도 오래전부터 경선을 준비한 예비 후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데다 일부는 그동안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여성 단수공천에 나섰다가는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부권은 무소속 바람이 거센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심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공천을 했다가는 민주당 우세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서구 을과 여수 갑, 광양·곡성·구례 지역구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성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은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적 중량감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지난 주 일부 공관위원들이 여성 단수공천 얘기를 꺼냈으나 공관위는 물론 당내에서도 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전략공천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구가 없는 상황이고 전남도 순천이 분구돼야 소병철 전 고검장의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순천의 분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 전 고검장이 비례대표로 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영입 인재 투입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 배치가 거론됐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의 경우, 수도권으로 가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송갑석·서삼석·손금주·이개호 등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손금주(나주·화순),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은 경선을,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 유일의 현역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은 단수 후보 신청지역이라는 점에서 후보 추가 공모 결과에 따라 단수 후보 확정 및 경선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선 지역으로만 보면 민주당이 천명한 전략공천 최소화와 2인 경선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는 현재 모든 지역구가, 전남은 나주·화순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맨 왼쪽) 대표와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지친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유의 공간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1) 의자

"그것은 일종의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찻잔이 차를 담고 있는 일/의자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있는 일/바닥이 신발 바닥을/혹은 발가락들을 받아들이는 일…"〈팻 슈나이더 작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중에서〉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시절이 뒤숭숭하여 일상의 평범함에 새삼 안도감을 갖게 되는 요즘이다. 늘 옆에 있어주는 좋은 사람들과 사물의 한결같음에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물은 무엇일까? 무거운 나의 육신을 지탱해주는 의자의 인내심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의자가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편하고 옹색했을까? 인간의 직립과 더불어 의자 생활은 눈부신 문명사회를 이룩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고흐, 고갱은 물론 일찍이 많은 예술가들은 의자를 주목해 미술작품으로서 나름의 사연을 담아 형상화했는가 하면 조셉 코수스 같은 개념미술가도 실제 의자, 의자를 찍은 사진,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담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인지와 사고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화가 목운 오견규(1947~)의 작품 '비움'(2019년 작)은 보는 순간 누구라도 그 의자에 앉아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지게 한다. 소박하고 투박한 빈 의자여서인지 지친 우리 삶을 쉬도록 편안하게 한 자리 내어줄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

오견규 작 '비움'

작가는 "법정스님이 살아생전 송광사 불일암에 기거하실 때 앉으시곤 했던 의자가 모델"이라면서 "몇 년 전 후박나무 아래 의자를 보았을 때 법정스님뿐 아니라 구름도 잠깐 쉬었다 가고, 새도 안개도 나그네도 머물다 가곤 하는 사유의 공간으로 마음에 와 닿아 그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 박사〉

민주, 전략공천 속도 '수도권 벨트' 지킨다

오늘 선대위 출범…'정책 비전' 강조하는 '겸손한 선대위' 표방

서울 광진을 고민정·경기 용인정 이탄희 등 격전지 전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

'임미리 칼럼' 고발 논란과 '강서갑 공천' 논란 등 잇단 악재에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 전략공천을 잇달아 확정하는 등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 방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발족식은 20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총선을 55일 앞둔 시점이다. 선대위는 당초 1월 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늦어졌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투톱 체제'로 총선을 지휘하고, 김진표(경기)·이개호(호남)·박병석(충청)·송영길(인천)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강원) 등이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영남권에선 김부겸(대구·경북), 김영춘·김두관(부산·경남)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대변인단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당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고발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경고음이 불거진 만큼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며 선대위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씀부터 잘 듣는 경청 선대위, 한없이 낮은 자세로 찾아가는 공손한 선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 후보 발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로 수도권 격전지나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통합당이 '황교안(종로)-오세훈(광진을)-나경원(동작을)' 공천을 완료하며 '한강벨트' 구상에 속도를 냄에 따라 민주당도 '수도권 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 경기 김포갑에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경남 양산갑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고 전 대변인은 이에 따라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게 됐다. 이 전 원장은 양산갑 현역인 통합당 윤영석 의원과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앞서 17일에는 종로에 이 전 총리, 경남 양산을에 김두관 의원, 경기 남양주병에 김용민 변호사, 경기 고양병에 홍정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동작을에는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기 광명갑에는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세종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 대전 대덕은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팀장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